

책판의 주석에 관한 연구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tes in the Wooden Printing Blocks

- Centered on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

김 기 화 (Kim, Ki-Hwa)*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주석의 형태 |
| 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 | 3.2 주석의 내용 |
| 3. 책판에 나타난 주석의 형태와 내용 | 4. 맺음말 |
| | <참고문헌> |

<초 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나타나는 주석이 지니는 의미와 본문 내용과의 관계에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나타나는 주석은 본문의 축약된 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와 본문에서 의심이나 의문이 나는 字를 선별하여 문장의 쓰임에 있어 타당한가의 여부를 살펴서 두주에 표기하는 방법도 있다.

책판에는 임금을 의미하는 “上”字나 “聖”字 또는 “王”字를 의도적으로 본문의 字보다 한 두 글자씩 올려 변란위에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頭註에 문집의 著者が 지닌 사상과 철학이 수록된 행의 난상에 “○”으로 표시하여 주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要語: 목판, 책판, 주석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okkihwa@hanmail.net)

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stinctive feature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text and the meaning of notes contained in the wooden printing blocks held by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The result shows that in some cases, the explanatory notes included in the wooden printing blocks gave an explanation of the contracted phrase in the text and in other cases, the headnotes were used to examine the appropriate usage of some characters or texts in question.

In these wooden printing blocks, such characters which means a king as ‘sang (上)’, ‘seong(聖)’ or ‘wang(王)’ are marked on the upper side by one or two characters above other characters in the text.

On the headnotes, the author’s thoughts and philosophy are provided as an explanatory notes with the mark “○”.

Key words: wooden printing, wooden printing blocks, notes

1. 머리말

冊板은 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된 木板을 의미하는 것¹⁾이며 木板은 나무판에 문자를 새겨 놓은 板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종이에 찍어서 만든 책을 木板本이라 한다. 이러한 목판 인쇄가 한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66년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되어 이미 8세기 중반에 불교경전의 목판인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 목판인쇄는 고려시대 초조 및 재조대장경 등의 간행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각종 학습서나 경서 등 많은 서적을 간행하는데 이용되었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지방에서도 가문의 족보나 문집 간행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족보나 문집은 여러 차례 간행을 하기도 하고 내용의 추가로 인해 본문의 변화가 심한 경우가 있어 출판에 앞서 교정이 필요하다.

목판본의 교정은 정고본이 완성된 이후 판각을 하기 위해 얇은 종이에 筆寫를 하고 필사가 끝나면 완성된 원고를 살펴서 교정을 하게 된다. 교정이 끝난 원고를 목판에 판각을 하게 된다.³⁾ 이 때 필사한 내용을 철저히 교정을 하지만 목판에 새긴 후 다시 교정을 하면 誤字나 脫字, 내용의 누락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나 글자의 수정을 지시하는 내용을 목판의 頭註, 즉 광곽의 欄上에 註釋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본문 가운데 주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의 해당 句나 節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주석을 달기도 하며⁴⁾ 誤字는 補刻의 방법으로 수정을 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대상으로 각 책판에 수록되어 있는 주석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한국국

1) 김종석, “한국 유교목판의 역사와 특징,” 『2008년 정기기획전 나무에 새긴 지식정보 목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2008), 36.

2)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청주: 고인쇄박물관, 2009), 10.

3) 張原演, “朝鮮時代 古文獻의 校正記錄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8), 57-58.

4) 김종석(2008), 18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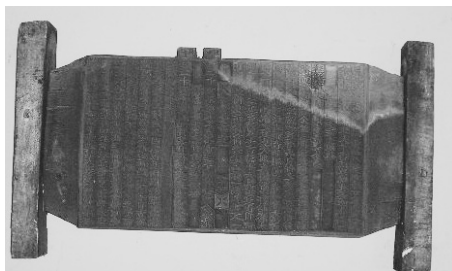
학진흥원 소장 책판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문집총간, 개인문집 및 목판과 관련된 논문이나 보고서와 고전번역원·역사통합시스템 등의 웹자료 등을 활용하여 책판에 수록된 주석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직접 실사하여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서 주석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을 대상으로 주석의 형태나 내용과 관련된 특징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

이 장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나타나는 주석을 조사하여 전체 현황을 살펴보았다.

책판에서 광곽의 위쪽 여백이 되는 판면을 ‘書頂’ 또는 ‘天頭’라고 하는데, 즉 書眉에 註가 나타나는 경우를 ‘頭註’ 혹은 ‘鰲頭’라고 부른다. 두주에 나타나는 내용이 본문에 대한 비평일 경우를 ‘眉批’라고 한다.⁵⁾ 책판에 나타나는 주석의 위치는 대부분 해당 행의 상단 난상의 ‘頭註’에 誤字나 脫字, 혹은 본문에 축약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주석이 있는 책판

5)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9), 55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들 중에서 『退溪先生文集』의 경우를 보면 1600년에 간행된 『退溪先生文集庚子本』과 庚子本을 수정한 『退溪先生文集庚子本覆刻本』, 庚子本을 覆刻한 擬庚子本을 비롯한 1724년에는 『退溪先生文集甲辰重刊本』이 간행되었다. 퇴계문집갑진중간본에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退溪先生文集甲辰重刊本』의 본문에 주석이 1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91년 柳建鎬가 간행한 『退溪先生文集考證』에서 주석이 125건 정도 수록되어 있고 李象靖이 李滉의 방대한 書簡 중에서 중요한 書簡만을 가려 뽑아서 엮은 『退溪先生書節要』 등에서도 120건 이상의 주석이 두주에 나타나 있다.

朱子の 書札 중에서 학문에 긴요한 것만 뽑아 편찬한 『朱子書節要』는 편찬된 직후 제자들에 의해 10년 내에 5차례나 출판될 만큼 많이 간행되었으며 주석이 240건 정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조 성리학자라면 누구에게나 필독서로 우리나라 문인들의 문집에 다량으로 반영되어 응용되었다.⁶⁾ 이 외에도 『宋季元明理學通錄』, 『心經發揮』, 『聯芳世稿』, 『啓蒙傳疑』, 『退溪先生言行通錄』 등에서 주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문집인 『謙菴集』, 『敬庵集』, 『大山集』, 『撫松軒集』, 『柏谷集』, 『別洞集』, 『齊山先生文集』, 『別洞集』, 『寒岡集』 등 약 105건의 책판(문집별)에서 주석이 파악되었다.

3. 책판에 나타난 주석의 형태와 내용

한국국학진흥원소장 책판 중에서 頭註가 있는 책판 약 105건을 대상으로 주석의 형태와 내용 등의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3.1 주석의 형태

주석은 사각형 혹은 윗부분은 둥근 타원형이고 아래는 사각형인 모양을 한

6) 宋熹準, “『朱子書節要』와 『大東韻府群玉』의 비교 고찰,” 『南冥學研究』 제17집, 317-318.

책판이 대부분이다. 주석의 형태는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책판을 다 완성하기 전에 내용을 수정할 경우 주석이 같은 책판에 고정되어 있는 일체형이 있다.



<그림 2> 주석의 형태

두 번째 방법은 책판을 다 완성하고 나서 다시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다른 나무판에 추가할 내용을 새겨서 책판의 板頭에 붙이고 鐵板조각을 대고 못질을 해서 변란 상단에 붙여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첨각할 때 사용하는 형태로 『退溪先生文集』처럼 후학들에 의해 여러 번 간행된 문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 번째 방법은 책판 두주에 홈을 파서 다른 나무판에 새긴 책판을 끼워 넣는 형태도 있다.



<그림 3> 주석의 형태

3.2 주석의 내용

3.2.1 본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주석

① 「葛庵先生文集」

李玄逸의 문집으로 1707년경 初本을 완성하였다. 여러 번의 교정을 거쳐 1724년에 定本을 완성하였지만 정치적인 사정으로 인해 100여 년이 지난 1810년경에 간행하였다. 초간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1909년에 증보하여 重刊하였다.

『갈암선생문집』 권25의 46장 12행 8~12字에 있는 “石門處士”에 대한 내용을 “又號臨川避外舅石門鄭公之號也”로 주석을 달아 나타내고 있다. “石門處士”는 臨川의 外舅인 鄭公 즉 ‘鄭榮邦’의 號라는 것을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그림 4> 「葛庵集」 권25(左)와 인출본(右)

② 「謙菴集」

柳雲龍의 문집으로 저자의 시문은 동생 柳成龍이 12권으로 편집하여 盧景任의 河上 寓所에 두었는데 1605년 망실되어 간행되지 못하였다. 1742년 6세손 柳泳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1803년에는 宗孫 柳宗陸, 7대손 柳象春 등이 초간본을 增補, 再編하여 8권 4책의 목판으로 중간하였다. 1972년에는 후손 柳時益, 柳秉夏 등에 의해 別集 3권 1책을 石印本으로 간행하였다.

『겸암집』 권3의 25장 1행 상단에 “從火荀”로 표기하여 주석을 달아 놓았다.



<그림 5> 「謙菴集」 권3, 25장(左)과 인출본(右)

③ 「敬堂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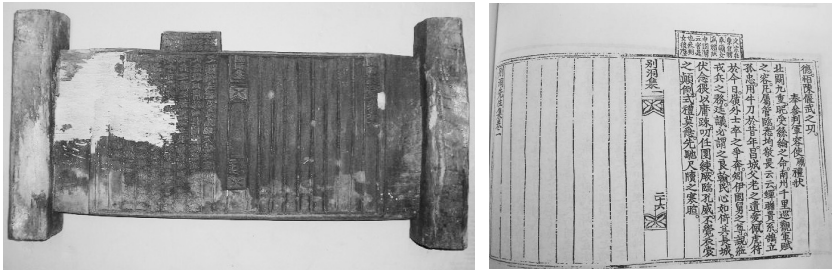
張興孝의 문집으로 1692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續集은 1818년에 鏡光書院 城谷齋舍에서 續集 2권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1861년과 1908년에 追刻된 것으로 보인다.

「경당집」 권2 부록 13장 4행 15字에 있는 “葬之日”에서 “葬”에 대한 내용을 “憲廟 戊申에 鏡光書院 西麓의 亥坐에 옮겨 놓았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④ 「別洞集別集」

尹祥의 문집으로 아들 尹季殷이 散佚되고 남은 遺稿를 收拾하여 1帙로 완성하였지만 간행은 하지 못하였다. 10세손 尹三徵·尹應徵 등이 1749년 峩山齋舍에서 木板으로 간행하였다. 1900년 후손 尹友進 등이 行狀·行錄·神道碑銘을 부록으로 하여 續集 2권을 간행하였다.

「별동집별집」 권1의 26장 6행의 상단에 “文宗在東宮聘奉礪女爲嬪狀中國舅云者是也參判女後廢”로 주석이 표기되어 있는 데, 이 내용은 본문 26장 6행에 있는 “國舅”로 축약한 본문내용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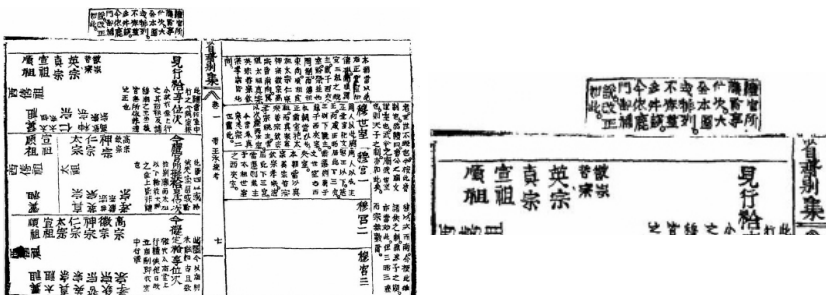


<그림 6> 「別洞集別集」 권1(左)과 인출본(右)

⑤ 「省齋集別集」

柳重敎의 문집으로 1897년에 간행된 초간본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1929년 당시 영남지방에서 이주해온 교민들이 모여 살고 있던 중국 북경 鳳凰城에서鉛活字로 중간간하게 되었다.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1974년에 同文社에서 2책으로 영인하였다.

「성재집별집」 권1의 7장 1행 난상에 “禮宮所議祫享位次大本國式排列不齊整多殊誤今依鹿門即備說改正如此”로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禮宮所에서祫享의 位次를 의논하니 大本의 國式 排列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이 많아서 이제 鹿門에 의거하여 說을 갖추어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림 7> 「省齋集別集」 권1, 7장 인출본

⑥ 「退溪先生文集」

李滉의 문집으로 본집의 간행은 1600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초간본인 庚子本으로 현재 玉山書院 및 계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부분만을 改刻하거나, 교정되어는 정도 완료된 후 전체를 다시 판각한 庚子本補刻本, 擬庚子本, 庚子本覆刻本도 있다. 이중에서 修正이 상당부분 진행된 경자본복각본만 유통되었다.

重刊本은 中本과 甲辰本(1724년)과 癸卯本(1843년)으로 구분되는데 中本은 실체가 확실하지 않고, 甲辰本은 庚子本의 체계와 같은 본으로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본은 대개 갑진본으로 板木의 마모에 따라 補刻도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丁丑年인 1817년에 약 200판 정도를 補刻할 때 頭註로 첨각하였는데,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첨각할 때는 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고 200판의 보각은 불량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癸卯本은 1843년에 간행된 중간본은 癸卯校正重刊本으로 嶺南의 전체 士林이 완전한 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하였고 甲辰本처럼 頭註가 첨각되어 있다.

『퇴계집갑진중간본』 권1의 12장 18~20행 “普舊本作實今依草本爲正後凡與舊本異者倣此”로 두주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序文中 普賢院의 ‘普’가 舊本에 ‘實’로 되어 있는데 이제 草本에 依據하여 바로잡고, 후에 舊本과 다른 것은 모두 이와 같이 한다”는 내용을 주석에 표기하였다.



<그림 8> 「退溪先生文集」 권1, 12장(左)과 인출본(右)

『퇴계집갑진중간본』 권1의 26장 2행 난상 두주에 “歎疑歎之誤凡言疑恐之類
即門下諸公所校”로 “歎”자는 ‘歡’자의 誤記로 의심되며, 무릇 의심되는 것은 문
하생들이 교정할 바이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9> 「退溪先生文集」 권1, 26장(左)과 인출본(右)

『퇴계집갑진중간본』 권1의 34장 8~9행인 “安知萬斛砂中藏天秘戒嗟我昧眞
訣悵望聊興喟”를 “自安知至興喟一本作中藏萬斛砂秘寶天所戒我欲移家去仙人
應不怪”로 주석을 달아 놓았다.



<그림 10> 「退溪先生文集」 권1, 34장(左)과 인출본(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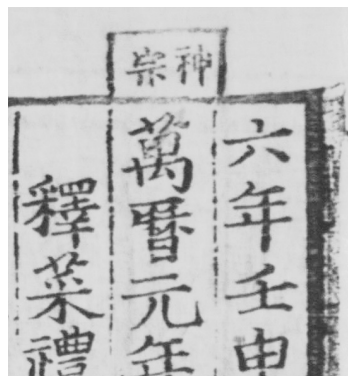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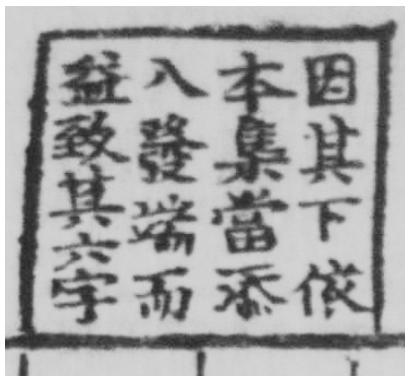
『퇴계집갑진중간본』 권2의 8장 7행 난상에 “一本蓮下有與字爲下有六字”로
표기한 것은 “一本에는 ‘蓮’자 아래 ‘與’자가 있어서 6자가 된다”는 내용을 주석에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퇴계문집에는 100권이 넘는 주석을 달아 본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⑦ 「退溪先生言行通錄」

1707년에 權斗經에 의해 편찬된 책으로 퇴계의 언행을 우선 學問, 行實, 出處, 議論, 雜記, 考終記의 다섯 類로 大別하고 그 아래 爲學之工과 讀書之法 등 25門目으로 세분하였다.

「퇴계선생언행통록」 권6의 연보 4장 13행에 “世宗”이라는 주석이 표기되어 있고, 권7의 연보 21장 1행에 “穆宗”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7의 연보 33장 18행 상단에 “因其下依本集當添入發端而益致其六字”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는 “因其 아래 ‘發端而益致其’ 여섯 글자를 본집에 의해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권7의 연보 59장 19행에는 “神宗”으로 표기된 주석이 있는데, 주석 아래 본문에 ‘萬曆元年’ 즉 1573년으로 중국의 ‘神宗’ 재위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退溪先生言行通錄」 권7, 연보 33장 인출본(左)과 권7, 연보 59장 인출본(右)

⑧ 「寒岡先生文集」

鄭述의 문집으로 1614년 蘆谷의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고, 1680년에 許穆의 주도로 原集 15권, 別集 3권이 重刊되었다.

『한강선생문집』 권2의 15장 4행의 본문 “內主咀呪外應逆謀母子之恩盖已絶矣”에 대한 내용을 “內主以下十六字當時備忘記中語而須告中外者也”로 주석을 달아 놓았다.



<그림 12> 「寒岡集」 권2, 15장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서 본문 내용을 설명해주는 주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본문 내용을 설명해주는 주석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頭註의 內容
1	葛庵集	재령이씨감암종과	권25	46/12	又號臨川避外舅石門鄭公之號也
2	謙菴集	풍산류씨검암종가	권3	25/1	從火苟
3	敬堂集	안동장씨경당종택	권2부록	13/4	憲廟戊申遷厝于鏡光書院西麓亥坐
4	別洞集別集	예천윤씨대종회	권1	26/6	文宗在東宮聘奉礪女爲嬪狀中國舅云者是也參判女後廢
5	省齋別集	경주손씨상재고택	권1	7/11	禮宮所議祿享位次大本國式排列不齊整多殊誤今依鹿門卽備說改正如此
6	退溪集甲辰重刊本	도산서원	권1	12/18	普舊本作寶今依草本爲正後凡與舊本異者倣此
			권1	26/2	歡疑歡之誤凡言疑卽門下諸公所校
			권1	34/8	自安知至興喟一本作中藏萬斛砂秘寶天所戒我欲移家去仙人應不怪
			권2	8/7	一本連下有與字爲下有六字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頭註의 內容
7	退溪先生 言行通錄	삼계서원안동권씨 충재종택	권7	33/18	因其下依本集當添入發端而益致其 六字
8	寒岡集	청주정씨문목공과 대종회	권2	15/4	內主以下十六字當時備忘記中語而須 告中外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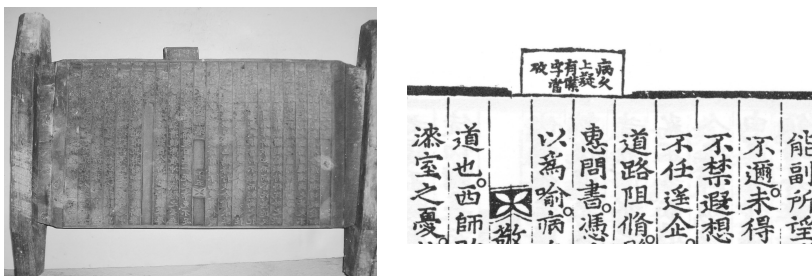
3.2.2 의심나는 字를 설명해주는 주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는 본문에 의심되는 글자에 대한 내용을 頭註에 표기한 것이 많다. 본문에 수록된 글자가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기하여 주석에 수록하고 있다. 의심나는 字의 행 상단 頭註에 해당 의심하는 字를 표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① 「敬堂集」

張興孝가 지은 시문이나 서간문, 잡문 등을 모아 엮은 책으로 이후 다시 누락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 敬堂續集이다. 詩에는 示學者, 歲除日與少友輩 등 문인들에게 권면하는 시와 다른 사람에게 보낸 贈詩와 呈詩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경당집』 권1의 15장 10행 4~5字 “病久”에 대해 “病久上疑有僕字當攷”라고 하여 난상에 주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病久” 위에 ‘僕’자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니 상고하라”는 내용이다.



<그림 13> 「敬堂集」 권1(左)과 인출본(右)

권2의 부록 14장 10행 16字의 “離”자를 ‘漓’자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離恐作漓”로 표기하여 주석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丹陽禹氏譜系卞正錄續錄』

安東鼎并齋舍의 단양우씨 譜所에서 1911년에 목판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단양우씨 忠靖公의 후손들이 계통을 바로잡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발문은 禹澤榮이지었다. 『단양우씨보계변정록속록』의 10장에 “嘆”을 誤字로 의심하는 내용을 “嘆恐誤”로 표기하여 주석에 나타내고 있다.

③ 『陶山及門諸賢錄』

퇴계 李滉과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아 엮은 책으로 간기는 없지만 1851년 도산서원에서 5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도산급문제현록』 권3의 41장 9행에 “淳恐或純”으로 표기된 내용이 주석에 수록되어 있는데, “淳”字가 혹시 “純”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16장 13행에 있는 “剽”가 혹시 “恨”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剽恐或恨”으로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외에도 본문에 수록된 字를 의심하는 내용이 두주에 많이 나타나 있다.

④ 『撫松軒集』

金淡의 문집으로 저자의 遺文은 저자의 死後에 散逸되어 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6대손 金鑒의 重試對策과 張顯光이 1635년에 지은 神道碑銘을 추가하여 1644년에 初刊을 하였다. 1707년에는 8대손 金萬柱가 重刊하였고 1767년에는 10대손 金堦가 三刊하였다. 四刊은 193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간행과 직접 관련된 序나 跋이 없어 간행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무송헌집』 권4의 10장 13행 2字에 있는 “知”는 衍文이다”라는 뜻의 “知恐衍”이라는 주석이 있다.



<그림 14> 「撫松軒集」 권4, 10장(左)과 인출본(右)

⑤ 「栢谷先生集」

鄭崐壽의 문집으로 현손 鄭鍵이 沈櫟의 아들 沈廷熙와 함께 舊本을 교정·증보하고 年譜를 편차하여 閔鎮厚의 교정을 거쳐 1710년에 예조 판서 金宇杭과 경상도 관찰사 洪萬朝의 협조를 받아 4冊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백곡선생집」 권2의 17장 6행 “伸”字가 誤字가 아닐까 하여 난상에 “伸恐誤”로 주석을 달아 표기하고 있다.



<그림 15> 「栢谷先生集」 권2(左)와 인출본(右)

⑥ 「西河先生集」

林椿의 문집으로 1222년에 西京의 諸學院서 木板으로 간행하게 하였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4대손 林再茂가 고려시대에 간행된 古本 1부를 얻어

1713년 목판으로 개간하였다. 1865년에는 후손 林德坤 등이 6권 2책의 木活字로 다시 간행하였는데 현재 성균관대와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57년에는 林氏大同花樹會總本部에서 6권 1책으로 石印本으로 간행하였다.

『서하집』의 序文 1장 16행에 있는 ‘禹稱’을 誤字로 의심하는 내용을 “禹稱可疑”로 표기하여 주석을 달아 놓았고, 序文 1장 18행 ‘右’字를 의심하여 “右字可疑”로 두주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 「西河集」 서문 1장(左)과 인출본(右)

권3의 3장 16행에도 “相疑作常”이 표기되어 있는데 “相”이 혹시 “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주석에 수록하였다. 권3의 5장 8행에는 “功”자는 의심컨대 “巧”자로 써야한다”는 내용을 “功疑作巧”로 표기하여 주석에 수록하였고, 5장 9행에는 “亢”字 를 의심하여 “亢字可疑”로 주석에 나타내고 있다. 권6의 3장 6행 9字 상단에 “所字疑衍”으로 표기하여 “所”자는 衍文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의 주석을 달아 놓았다

⑦ 「聯芳世稿」

靑溪 金璫과 그의 다섯 아들 藥峯 金克一, 龜峰 金守一, 雲巖 金明一, 鶴峯 金誠一, 南嶽 金復一의 시문집을 함께 모아 총 3책으로 간행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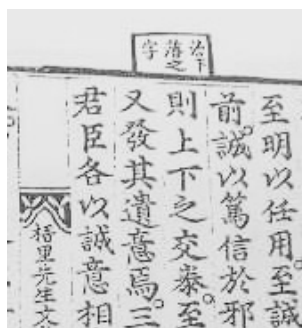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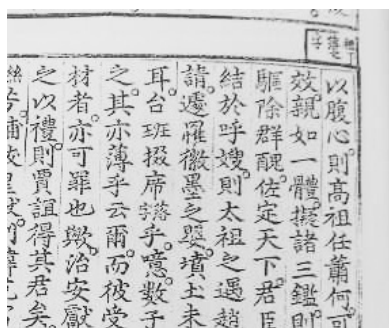
『연방세고』 권3의 21장 15행은 “瘰恐作鰥”으로 ‘瘰’자를 ‘鰥’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주석이 있고, 30장 17행의 난상에 ‘發’자를 ‘醎’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發恐作醞”로 표기한 주석이 있다. 39장 6행 난상에는 “丁亥”를 ‘丁酉’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丁亥當作酉”로 수록된 주석이 있다.

⑧ 『梧里先生文集』

李元翼의 문집으로 『梧里先生文集』은 1691년에 간행하였고 『梧里續集』은 玄孫 李存道가 편찬하여 1705년에 內兄인 慶尙道 觀察使 金演의 도움으로 간행한 것이다.

『오리집』 권1의 18장 1행 6字인 ‘祖’를 ‘祖下落之字’라고 표기하여 주석에 수록하였으며 권1의 19장 9행 8字인 ‘治’字에 대한 내용을 난상에 ‘治下落之字’로 표기하여 두주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 『梧里集』 권1, 18장 인출본(左)과 권1, 19장 인출본(右)

⑨ 『秋江集』

南孝溫의 문집으로 1577년에 慶尙監營에서 목판으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1677년에 금구에서 5권 4책의 목판본으로 重刊하였는데, 현재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缺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 후 生六臣의 후손인 趙基永·李家鉉·成近默 등이 生六臣의 시문을 수집·考訂·편차하여 1833년에 경상감영에서 간행하였다. 1921년 傍後孫 南相圭가 淸道郡 新安에서 8권 5책의 목판본으로 三刊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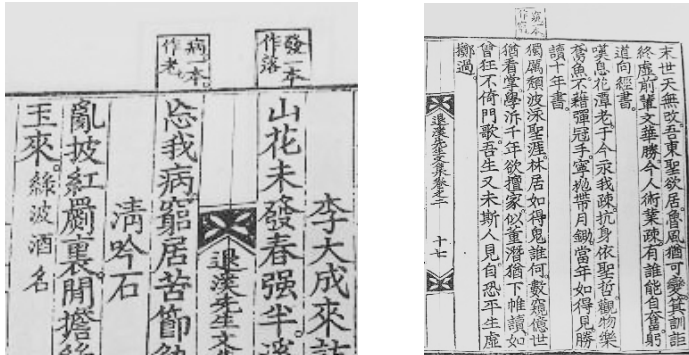
『추강집』 권1의 2장 17행의 난상에 “氣”를 誤記로 생각하여 “氣恐誤”로 표기

한 주석이 수록되어 있고, 권1의 18장 18행 4字인 “一”을 誤字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一恐誤”로 표기하여 주석을 달아 놓았다. 권1의 26장 20행 18字인 “修”를 誤字로 생각하여 “修恐誤”로 표기하여 頭註에 수록하였다.

⑩ 『退溪先生文集』

退溪集 甲申重刊本 권1의 11장 3행에 “世一本作事”로 “世”는 다른 책에 ‘事’로 썼다”라는 내용의 주석이 있고 권2의 17장 7행에 있는 “窺”를 다른 책에서는 ‘窮’으로 썼다”는 내용이 “窺一本窮”으로 두주에 표기하여 나타나고 있다.

『퇴계선생문집』 권2의 12장 10행에 있는 “發”을 다른 책에서는 ‘落’으로 썼다”는 내용의 주석이 “發一本作落”으로 표기되어 있고 권2의 12장 11행은 “病”자를 다른 책에서는 ‘老’자로 썼다”는 내용을 “病一本作老”로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 외에도 퇴계선생문집에 있는 頭註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⁷⁾



<그림 18> 『退溪先生文集』 권2, 12장 인출본(左)과 권2, 17장 인출본(右)

7) 퇴계선생문집에 나타나는 頭註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恐B之誤, A疑B, A恐B, A恐當作B, A似是B, A作B, A當作B의 형태는 A는 B여야 한다. 또는 無A字는 A字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A上有B字는 A字위에 B字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주석의 형태이다. A下有B字는 A字 아래 B字가 있다는 뜻이고 A字 抹改 B字의 의미는 “A字는 지우고 B字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A下當圈은 “A字 아래 ○표를 함이 마땅하다”는 뜻이며 間一字의 의미는 “한 字를 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連書는 “이어 쓰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重刊本 插疑』, 『韓國學論叢』第12輯(1985), 29-31.

⑪ 「退溪先生書節要」

『퇴계문집서절요』 권6의 15장 13행에는 “一本心下有已”로 표기한 주석이 있는데, ‘心’자 아래 ‘已’가 있다는 것으로 A字 아래 B字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와 동일한 형식은 권7의 8장 7행에 “一本子弟下有者字”로 표기한 것과 권7의 10장 7행에 “一本常下有胡字”, 권8의 44장 8행에 “天下本有使字”로 권9의 33장 12행에 “一本而字下有去字”라고 표기하여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 밖에 권5의 66장 2행에는 “一本又思下”로 표기한 주석과 권5의 66장 12행 “作事心本”으로 권7의 42장 5행에 “耳”는 다른 책에 ‘而’로 썼다”라는 내용의 주석이 “耳一本而”으로 수록되어 있다.

⑫ 「寒岡集」

『한강집』 권3의 33장 7행에 있는 ‘不’字를 의심하는 내용을 “不下恐有忍字”로 표기하여 주석에 나타내고 있다. 권7의 7장 6행 18字 “倡”자를 “彰”자의 誤記로 의심하는 내용을 “倡疑彰字之誤”로 두주에 나타내고 있다. 권8의 1장 20행 11字 인 “禮”자를 ‘制’자로 의심하는 내용”을 “禮恐作制”로 표기하여 頭註에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수록된 주석에서 의심나는 字를 주석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집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의심나는 글자를 설명해 주는 주석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頭註의 內容	類型
1	敬堂集	안동장씨 경당종택	권1	15/10	病久上疑有僕字當攷	·
			부록 권2	14/10	離恐作適	A作B
2	丹陽禹氏譜系下 正錄續錄	단양우씨 종친회	·	10	嘆恐誤	A恐誤
3	陶山及門諸賢錄	도산서원	권3	41/9	淳恐或純	A恐或B
			권4	16/13	剽恐或恨	A恐或B
4	撫松軒集	영주선성김씨무 송헌종택	권4	10/13	知恐衍	A恐衍

책판의 주석에 관한 연구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頭註의 內容	類型
5	栢谷先生集	청주정씨문목공 파대종회	권2	17/6	伸恐誤	A恐誤
6	西河先生集	예천옥천서원	서문	1/16	禹稱可疑	A可疑
				1/18	右字可疑	A可疑
			권3	3/16	相疑作常	A疑作B
				5/8	功疑作巧	
				5/9	亢字可疑	A可疑
7	聯芳世稿	의성김씨 천전파대종택	권3	21/15	癢恐作鰥	A恐作B
				30/17	發恐作齷	
			권5	1/3	身如矣集作臣	A作B
				39/6	丁亥當作酉	A當作B
8	梧里先生文集	풍산류씨 하회충효당	권1	18/1	祖下落之字	A下落之字
				19/8	治下客之字	
9	秋江集	하양허씨 문경공파종친회	권1	2/17	氣恐誤	A恐誤
				18/18	一恐誤	
				26/20	脩恐誤	
10	退溪先生文集 甲辰重刊本	도산서원	권1	11/3	世一本作事	A一本作B
			권2	12/10	發一本作落	
				12/11	病一本作老	
				17/7	窺一本作窮	
11	退溪先生書節要	한산이씨 대산종가	권6	15/13	一本心下有已	A下有B
			권7	8/7	一本子弟下有者字	A下有B字
				10/7	一本常下有胡字	
				42/5	耳一本而	A一本B
			권8	44/8	天下本有使字	A下有B字
12	寒岡先生文集	청주정씨 문목공파대종회	권9	33/12	一本而字下有去字	A下B有字
			권3	33/7	不下恐有忍字	A下恐有B
			권7	7/6	倡疑彰字之誤	A疑B之誤
			권8	1/20	禮恐作制	A恐作B

<표 2>에 나타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誤字를 의심하는 내용의 유형은 ‘A當作B’, ‘A疑B’, ‘A恐B’, ‘A恐或B’, ‘A疑作B’, ‘A作B’, ‘A下落之B’, ‘A恐誤’, ‘A一本作B’, ‘A下有B字’, ‘A疑B之誤’, ‘A恐作B’

등으로 파악되었다.

3.2.3 본문에 누락된 字를 나타내는 주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에는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나 내용을 누락하였을 때 누락된 字나 내용을 두주에 표기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 번의 교정을 거쳐 책판을 완성하지만 완성된 책판에도 간혹 실수로 본문의 글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책판에 표기할 내용을 다 완성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글자나 내용을 본문에 삽입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 이때 빠진 글자나 내용은 누락된 행 상단 난상에 새겨 주석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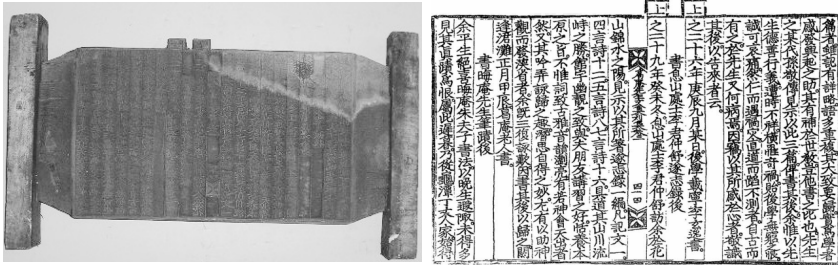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나타나는 누락된 글자를 표기한 주석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葛庵集別集」

『갈암집별집』 권3의 42장 20행과 권3의 44장 8행과 9행에서는 “上”자를 난상에 새겨놓았다. “上”字나 “聖”또는 “王”子是 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본문내용에서도 본문글자보다 한 두 字를 올려 두주에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 「葛庵集別集」 권3, 42장(左)과 인출본(右)



<그림 20> 「葛庵集別集」 권3, 44장(左)과 인출본(右)

② 「敬齋先生文集」

河演의 문집으로 저자의 詩文은 대부분 兵火에 산일되었는데, 5세손 河渾이 시문 약간 편을 모아 晉陽聯稿에 編入하여 1609년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1826년에 후손 河大成·河寅燦 등이 陝川에서 活字本으로 간행하였다. 1857년에 族譜를 만들면서 후손 河寅煥·河箕泓 등이 5권 2책의 활자본으로 중간하였다. 1919년에 후손 河述孝 등이 密陽에서 목판본으로 三刊 하였다. 「경제선생문집」 부록 권5의 18장 14행의 난상에는 “批”를 새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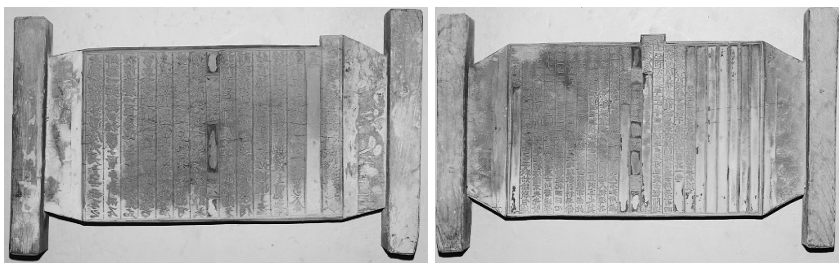
<그림 21> 「敬齋先生文集」 15장(左)과 인출본(右)

③ 「槐潭遺稿」

裴相說의 시문집으로 형인 相賢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으나 연도는 미상이다.

권두에는 趙述道가 1799년에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金翰東이 쓴 『괴담유고』의 誌와 1808년에 黃龍漢이 쓴 발문이 있다.

『괴담유고』 권1의 4장 1행의 “上”와 권3의 서문에 “今上”과 “英宗”을 본문 내용보다 한 자 올려 난상에 새겨 놓았다.



<그림 22> 「槐潭遺稿」 권1, 4장(左)과 권3, 序文(右)

④ 『嶠南貧興錄』

1792년에 영남지방의 儒生들에게 과거를 보이고 급제자의 榜目과 科文을 모아 엮은 책이다. 『교남빈흥록』 권2의 1장에 “聖”을 난상의 두주에 새겨 놓았다.

⑤ 『大溪先生文集』

李周禎의 시문집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와 간행년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배움은 항상 행동에서 일속되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예의를 근본으로 하여 格物致知와 誠意正에 노력하도록 자손들에게 훈계하였다. 『대계선생문집』 권6, 15장 6행의 두주에 “金右”이 새겨져 있다.



<그림 23> 「大溪先生文集」 권6, 15장 4행

⑥ 「東里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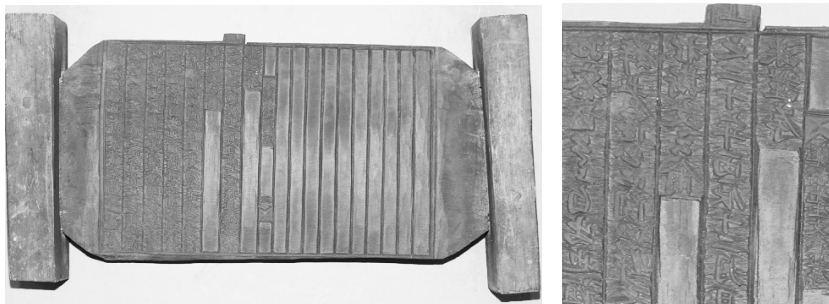
李殷相의 문집으로 1702년 金鎭華가 刪定, 編輯되어 家藏된 시문을 16권 5책으로 만들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의 重刊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金昌協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고, 目錄은 없으며 권1~9는 930여 首의 詩로 이루어져 있다. 「동리집」 서문 1장 15행의 난상에 임금을 지칭하는 “聖”자를 새겨 놓았다.



<그림 24> 「東里集」 서문 1장 15행

⑦ 「龍巒先生文集」

조선 중기의 학자인 權紀의 시문집이다. 1800년에 후손 潤身이 편집, 간행하였다. 「용만선생문집」 권1의 3장 난상에 임금을 나타내는 “上”을 한 자 올려 새겨 놓았다.



<그림 25> 「龍巖先生文集」 권1, 3장

⑧ 「春秋輯註」

조선시대 李惟禕의 편저로, 5권 5책의 목판본이다. 간행연대와 간행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춘추집주』 권1의 22장 15행의 “壬申”과 27장 6행에 “丁丑”, 27장 17행에도 “丙子”로 두주에 새겨 놓았다.



(권1, 22장)



(권1, 27장, 6행)



(권1, 27장, 17행)

<그림 26> 「春秋輯註」 권1, 22장(左)과 권1, 27장(右)

⑨ 「海月先生文集」

조선중기 문장가인 黃汝一의 문집으로 이 문집은 영조 때 14권 7책의 목판본으

로 간행되었다. 해월선생의 시문에는 일반 비결서에 쓰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의 名士들과 주고받은 시 속에다 비밀들을 은밀하게 감추어서 후세에 전한 것이다.

『해월선생문집』 권8의 15장 13행 두주에 임금을 지칭하는 “王”을 표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 27> 『海月先生文集』 권8, 15장 ‘王’

⑩ 『湖陽先生文集』

權益昌의 시문집으로 趙穆·金誠一의 문인이다. 현손인 相頊이 생전의 저술을 모아서 편집과 교감을 訥隱 李光庭이 하였지만 간행하지 못하고, 100여년 뒤에 후손 進龍 간행하였다. 『호양선생문집』 서문 5장의 두주에 ‘上’을 새겨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수록된 주석에서 본문에 누락된 字를 표기한 주석은 <표 3>과 같다.

<표 3> 본문에 누락된 字를 나타내는 주석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頭註의 內容
1	葛庵集別集	재령이씨갈암종파	권3	42/20	上
				44/8	
				44/9	
2	敬庵先生文集附錄	고창오씨의령공파문중	권5	18/14	批
3	槐潭遺稿	홍해배씨괴암종택	권1	4/1	上
4	嶠南貧興錄	도산서원	권2	1/19	聖
5	大溪先生文集	고성이씨팔회당종택	권6	15/6	金右
6	東里集	고성이씨팔회당종택	서문	1/15	聖
7	海月先生文集	평해황씨해월종택	권8	15/13	王
8	龍巖先生文集		권1	3/12	上
9	春秋輯註	예안이씨고산종가	권1	22/15	壬申
			권1	27/6	丁丑
			권1	27/17	丙子
			권1	28/2	己卯
			권1	28/13	戊寅
10	湖陽先生文集	안동권씨부정공파종중	서문	1/5	上

3.2.4 頭註에 “○”로 표기한 주석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수록된 주석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과는 다른 형태로 두주에 “○”로 표기된 주석이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두주에 “○”이 수록 되어 있는 문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山集』

李象靖의 문집으로 조카인 이우가 1802년에 부친 李光靖의 뜻을 이어서 工役을 마쳐 52권 27책을 간행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산집』 권32의 11장 8행인 “敬齋箴不東以西不南以比之義頃因尊諭已”의 상단에 “○”으로 표기하였다. 권39의 36장 17행인 “靜時存養發處自然中節發而

中節靜時尤得” 상단에도 “○”으로 표기되어 있다. 주석에 “○”이 표기되어 있는 행의 내용은 대부분 저자의 사상적 이념과 철학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 「大山集」 권39, 36장, 17행(左)과 인출본(右)

② 「大山先生實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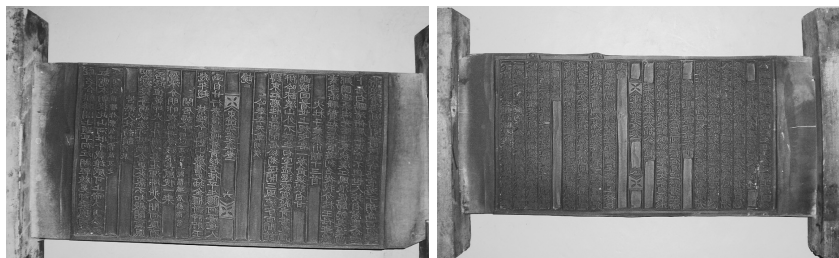
1845년 李象靖의 외증손 柳致明이 大山先生實記를 10권 5책으로 편집하고, 따로 高山及門錄을 3권으로 편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1925년에 6대손 李性求가 刪節도 하고 補充도 하여 「實記」와 「及門錄」 둘을 모두 重刊하였다. 「대산선생실기」 권5의 14장 14행과 권5의 18장 10행 난상에 “○”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29> 「大山先生實記」 권5, 14장, 14행(左)과 권5, 18장, 10행(右)

③ 『東溟先生文集』

『동명선생문집』 권1의 6장 2행과 8장 13행의 난상에 “○”이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본문의 18곳에서 “○”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30> 『東溟先生文集』 권1, 6장(左)과 권1, 8장(右)

④ 『屏谷先生文集』

權渠의 문집인 병곡집은 1797년에 士人 金弼衡의 發議로 외손 柳一春이 주도하여 屏山書院에서 원집 8권, 부록 2권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병곡집』 권5의 3장 21행과 권5의 6장 11행에 “○”이 두주에 표기되어 있다.

⑤ 『定齋先生文集』

柳致明의 문집으로 1883년 안동의 龍潭寺에서 목판으로 36권 19책을 간행하게 되었고 續集과 附錄은 1901년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續集과 附錄은 현재 남아 있는 문집 가운데 원집과 속집·부록이 같이 규장각과 장서각의 소장본이 있고, 속집과 부록만 별도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정재집』 권17의 5장 13행의 난상 두주에 “○”이 표기되어 있고 권18의 45장 3행 난상에도 동일하게 “○”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31> 「定齋先生文集」 권17, 15장, 13행(左)과 인출본(右)

⑥ 「好古窩文集別集」

柳徽文의 시문집으로 29권 15책이다. 원집 19권은 1896년에, 별집 8권과 부록 2권은 1898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1972년에 5대손 秉熙가 6권 3책의 外集을 石印本으로 간행하였으며, 1985년 후손 正基가 6권 3책의 필사본으로 전하던 續集을 全州柳氏水谷派之文獻叢刊에 수록하여 영인하였다.

「호고와문집별집」 권13의 9장 1행과 26장 11행의 난상에 “○”이 표기되어 있다.



<그림 32> 「好古窩文集別集」 권13, 9장, 1행(左)과 권13, 26장, 11행(右)

⑦ 「后山先生文集」

許愈의 문집으로 1909년에 19권 10책의 木板으로 문집을 간행하였고, 1964년에는 문인 許祥奎 등이 8권 2책의 續集을 鉛活字로 간행 하였다. 1999년에는 曾孫 許汪道가 原集, 續集 및 「聖學十圖附錄」을 함하여 영인하였다.

『후산선생문집』 권12의 16장 12행과 권12의 18장 11행 두주에 “○”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33> 『后山先生文集』 권12, 16장, 12행(左)과 권12, 18장 11행(右)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에 “○”을 표시한 행의 내용은 대체로 문집의 著者들이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주석에 “○”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頭註에 “○”이 나타나는 주석

番號	板種名	源所藏處	卷次	張/行
1	大山集	한산이씨대산종가	권32	11/8
			권39	36/17 39/4
2	大山先生實記	한산이씨대산종가	권5	14/14 14/15
3	東溟先生文集	평해황씨해월종택	권1	6/2 8/13
4	屏谷先生文集	안동권씨병곡종택	권5	3/21 6/11
5	定齋先生文集	전주류씨정재종택	권17	15/13
			권18	45/3
6	好古窩文集別集	전주류씨호고와종택	권13	9/1
			권13	26/11
7	后山先生文集	진성이씨일직파후산종택	권12	16/12 18/11

4. 맺음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수록되어 있는 주석의 위치는 대부분 잘못되거나 고쳐야 되는 내용이나 字가 있는 행의 난상 頭註에 주석이 표기되어 있다. 책판에 나타나는 주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축약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두주에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둘째, 본문에서 의심이나 의문이 나는 字를 선별하여 문장의 쓰임에 있어 타당한가의 여부를 살펴서 두주에 표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임금을 의미하는 “上” 字나 “聖” 字 또는 “王” 字 등을 의도적으로 본문의 字보다 한 두 글자씩 올려 난상에 수록하여 나타내고 있다. 넷째, 문집의 著者が 지닌 사상이나 철학이 수록된 행의 두주에 “○”을 표기하여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종석. “한국 유교목판의 역사와 특징.” 『2008년 정기기획전 나무에 새긴 지식정보 목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2008.
- 남권희. “韓國의 木板印刷研究.”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 尹炳泰.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朱子書節要를 中心으로 - 退溪書誌의 研究 其二 -.” 『퇴계학과 한국문화(구-한국의 철학)』 vol.7(1978).
- 宋熹準. “『朱子書節要』와 『大東韻府群玉』의 비교 고찰.” 『南冥學研究』 제17집. 317-355.
- 李源周. “退溪先生文集 重刊本 插疑.” 『韓國學論叢』 第12輯.
- 張原演. “朝鮮時代 古文獻의 校正記錄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8.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청주: 고인쇄박물관, 2009.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9.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편. 『동아시아 목판인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편. 『한국국학진흥원소장 책판의 종합적 검토 최종보고서』.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9.

2. 웹사이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un.ac.kr/search/search01.jsp>>.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MAN/index.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국학진흥원. <<http://www.koreastud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yoksa.aks.ac.kr/>>.